

http://dx.doi.org/10.17703/JCCT.2018.4.3.165

JCCT 2018-8-20

전문대학의 창업지원 모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support model of colleges

김재호

Jae-Ho Kim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창업인프라와 학생들의 기업가적 역량, 태도, 창업의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대학과는 다른 전문대학의 차별화된 창업교육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첫째, 수도권 전문대학의 창업 기반을 파악하기 위해 창업진흥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둘째,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창업의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해 교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4년제 대학과는 같은 인프라를 갖출 수 없다 따라서 차별화된 인프라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창업의지는 역량과 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과 창업 동아리와 같은 비교과 과정을 통해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주요어 : 창업인프라, 기업가적역량, 기업가적태도, 창업의도, 전문대학 창업교육

Abstract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foundation infrastructure of college and the entrepreneurial abilities, attitud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tudents. This aim is to provide differentiated entrepreneurial education methodology of colleges different from general universities. First, in order to grasp the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of the college, we conducted an interview with the person in charge and evaluated it based on the criteria presented at the Foundation Promotion Agency. Secondly,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students of colleges and analyzed entrepreneurial ability, entrepreneurial attitud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 a result,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derived. As colleges have a shorter period than general universities, it is impossible to prepare the same infrastructure with 4 year universities, so differentiated infrastructure standards should be presented. It is lower than the competence and attitude of the student's foundation. Therefore, in the course of education, we must seek methods that can increase the degree of establishment through comparative processes such as educational curriculum and founding circle, which are practical and not theoretical contents.

Key Words :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entrepreneurial abilities, entrepreneurial attitude, entrepreneurial intentions

1. 서론

최근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은 높은 지식과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혁신

적인 창업의 근본적인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의 성공은 주변의 스탠포드대학을 빼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 세계적 기업인 구글의 공동창업자인 세라게이그린과 래리 페이지는 스탠포드

*정회원, 청운대학교 미래창업학과
접수일: 2018년 6월 8일, 수정완료일: 2018년 7월 2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7일

Received: June 8, 2018 / Revised: July 2, 2018

Accepted: 7 August, 2018

*Corresponding Author: kim2144@daum.net

Dept of Future & Entrepreneurship Chungwoon University
Korea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의기투합하여 창업을 한 경우이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 창업자인 저커버그 등 스탠포드대학, 버클리대학 등 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우수 인재와 벤처·창업기업이 공존하는 실리콘 벨리를 형성하여 약 44만개 기업이 창업되어 있으며, 매출액 기준 1억 달러 이상이 595개, 10억 달러 이상이 28개사 등을 이루며 미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1]

영국의 경우, 캠브리지 대학은 산학협력 클러스터의 중추기관인 'St. Johns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4,300개 지식기반 혁신기업 소재,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Unicorn 기업이 14개, 이중 3개사는 100억 달러를 능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역할은 집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교육하여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에서도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면 대학 혹은 대학원을 중심으로 창업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에서도 창업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지만 4년제 대학과 달리 창업지원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모델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인식을 조사하여, 전문대학에서의 효율적인 창업 지원 방법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대학의 창업인프라

1. 대학의 창업교육 모듈(Module)

창업교육은 사업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며, 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2]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등 양적으로는 확산되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이론적 기반이 약하고 표준화, 체계화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창업진흥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창업교육 모듈을 제시하여 각 대학의 창업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Module 1에서는 정규교과에서의 창업 강좌의 양과

수강생의 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좌 수는 10개 이상, 수강 학생 수는 전체학생의 10% 이상이 수강하면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Module 2에서는 대학의 비교과를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창업동아리는 16개 이상으로 참여 학생의 비율은 2%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경진대회는 2건 이상을 제시하며, 셋째, 캠프 및 특강은 10건 이상 시행하는 것을 만점 기준으로 제시하며 그 외에도 자율특화프로그램의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Module3에서는 창업사업화 인프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스카우팅 활동과 액셀러레이터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스케일업 활동 영역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Module4에서는 통합형 조직과 5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아리활동을 위한 공간의 구체적인 면적 및 장비까지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모듈4에서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및 인사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학사제도는 창업휴학제, 창업학점교류, 창업(현장)실습, 창업장학금, 창업연계전공, 창업특기생, 창업대체논문 등의 제도이다. 둘째, 창업인사제도는 창업휴직, 교원 창업업적평가 반영, 창업중점교원, 창업연구년, 지도학생창업 업적평가 반영 등의 제도이다. 이 외에도 창업 포털의 운영까지도 창업인프라로 갖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 1. 창업교육 모듈

Table 1. Modu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모듈명		개요
Module 1	정규교과	학점이 부여되는 창업 강좌
Module 2	비교과	창업동아리 등 창업 준비 활동
Module 3	창업사업화	창업사업화 지원
Module 4	조직/인력	창업지원 조직 및 인력
	공간/장비	창업지원 공간 및 장비
	학사제도	창업친화적 학사 제도
	창업포털	창업지원 온라인 플랫폼

2.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 창업의도

1)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

기업가적 역량(Entrepreneurial Ability)은 개인이 기업가(Entrepreneur)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다양

한 선행연구에서 창업 역량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개인의 기업가적 역량과 태도를 높인다면 창업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창업 의지는 개인이 기업가적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3]

이러한 노력들은 동기 유발적 요인들 또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들인 기업가적 역량,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등을 필요로 한다 (Diffley, 1982).[4]

일반적으로 태도는 대상, 사람, 기관, 사건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이며,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도가 더 강하다.

2) 창업의도

창업 의도는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 기업 안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며 창업활동을 밀고나가는 추진력이기도 하다.[5] 창업의도 활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SEE로 알려진 Shapero (1982)의 창업 이벤트 모형(Shapero's model of entrepreneurial event)이고 다른 하나는 TPB로 불리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으로 이 두 가지 주장은 유사한 의도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6] SEE모형은 창업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각된 실현가능성(perceived feasibility), 지각된 열망(perceived desirability), 그리고 행동하려는 경향(propensity to act) 등 세 가지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TPB모형은 의도의 선행변수로서 행동을 향한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등을 주요요인으로 보고 있다.[7]

III. 실증연구 설계 및 분석

1. 연구배경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창업모듈 및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 창업의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수도권 모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면접과 설문을 실시하였다. 창업모듈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 창업의도를 파악하기 위하

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10일부터 20일 사이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창업모듈분석

창업진흥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 전문대학의 인프라를 4개의 모듈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창업교육 모듈 분석
 Table 2.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dule

모듈 (Module)	배점 (Scoring)					가중 치 (점)	진단 결과	
	2	4	6	8	10			
정규 교과 (20)	강좌 수	2개	5개	7개	10개	11개 이상	10	20
	이수 학생 비율	~2%	2%~ 4%	4%~ 6%	6%~ 10%	10% 이상	10	20
비교 과 (25)	동아 리수	3개	6개	10개	15개	16개 이상	5	20
	동아 리 참여 학생 비율	0~ 5%	0.5 %~ 1 %	1%~ 1.5 %	1.5 %~ 2 %	2% 이상	5	30
	경진 대회	1건		2건		2건 이상 +고 도화	5	20
	캠프 및 특강	5건		10건		10건 이상 +고 도화	5	20
	자율 특화	자율프로 그램 1개		자율프로그램 2개		자율 3개	5	20
창업 사업 화 (25)	스카 우팅	스카우터 보유 1명		창업 자 발굴 (일 반) 2건	창업 자 발굴 (고 급) 2건	대학 보유 기술 사업 화 2건	10	20
	엑셀 러 레이 팅	투자설명 회 개최		투자 유치 1건	투자 유치 2건	창업 지원 사업 유치 or 기술 지주 회사 투자	10	60
	스케 일업	글로벌시 장진출지 원 1건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2건		기타 특성 화 성과	5	30
지원 인프라	조직	전담조직 보유		원스톱 창업상담창		통합 형	5	20

라 (30)	인력		2명이상 전담인력		4명이상 전담인력		조직 5명 이상 + 3년 경력 자 30% 이상		5	20	
	공간		동아 리방 운영	동아 리방 115. 5m2 이상	창업 준비 실 운영	공동 창업 보육 실 운영	연계 공간 운영		4	16	
	장비		메이커스 페이스 운영		운영 전문 인력 1명	교육 프로 그램 운영	공동 연구 장비 와 연계		4	24	
	제	학 제	창업휴학제, 창업학점교류 창업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장학금				창업연계진 공, 창업특기생 창업대체논 문		5		20
			2개	3개	4개	5개	6개	5		20	
	인 제	창업 포털	창업휴직, 교원창업 업적평가 반영 창업중점교원			창업연구년, 지도학생 창업 업적평가 반영		5		20	
			1개	2개	3개	4개	5개	2		8	
	합 계									100	388

이 대학은 총점 1,000점 중 388점으로 평가되었다. 모듈1 및 모듈2에 해당하는 교과목 개설 및 비교과 운영은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지만, 창업사업화를 위한 시설, 장비, 제도 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성장을 위한 제도는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학습기간이 짧기 때문에 학부,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대학과는 다른 환경적 요인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 창업의도 분석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조사에는 총 112명이 응답하였으며, 각 문항별로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하고 유효설을 채택하여 여 분석하였다. 응답자112명 중 남성이 68명으로 60.7%를

차지하며, 여성은 44명으로 39.3%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나이를 살펴보면 18세부터 26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20세가 이 31명(28.6)으로 제일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19세가 23명(20.5%)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23세 학생들이 13명으로 (11.6%)나타나고 있다. 그 외 24세에서 26세의 나이를 나타내고 있다. 학년을 살펴보면 총 112명의 응답자 중 1학년이 30명(26.8%)이고 2학년이 82명(73.2%)로 나타나고 있다. 본 설문 대상에는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를 전공별로 살펴보면 총 응답자 112명 중 답한 104명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가 69명(61.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학계열이 33명 (29.5%)를 나타내고 있고 소수로 예체능 2명(1.8%)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의 창업교육 수강 여부를 분석하면 ‘없다’는 응답이 82명으로 73.2%를 차지하고 있고, ‘1회 수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0명으로 26.8%를 차지하고 있다. 2회 이상을 수강했다는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친화적 프로그램 이용에 답한 본 질문의 응답자 중 대다수인 107명 (95.5%)가 창업친화적 학사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 (3.6%)의 응답자만이 창업친화적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결과는 창업모듈 분석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2) 기업가적 역량 분석

기업가적 역량 분석은 아래의 문항을 을 7점 리커트 척도로 분석하였다.

표 3. 기업가적 역량
Table 3. Entrepreneurial Ability

문항	
Q1	나는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Q2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Q3	주위 사람들과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Q4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다.
Q5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 익숙하다
Q6	나는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본 설문에 대한 통계량을 분석하면 총 응답자는 112명이고 6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 응답하였다. 6번 문항에서는 하나의 결측치가 있다. 문항별 신뢰

도는 모든 문항이 .6 이상으로 신뢰의 요건을 갖추었다.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기업가역량 기술통계량
 Table 4. Analysis of Entrepreneurial Ability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Q1	112	1	7	4.29	1.190
Q2	112	2	7	4.57	1.113
Q3	112	2	7	4.73	1.208
Q4	112	1	7	4.49	1.090
Q5	112	2	7	4.27	1.215
Q6	111	1	7	4.12	1.326
유효수 (목록별)	111				

기업가적 역량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각 문항별 결과를 보면 보통 중간에 해당하는 4점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 중 가장 높게 나온 문항은 Q3(주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다. 다음으로는 Q2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이다. 반면에 Q6(나는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와 Q5(아이디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 익숙하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 관한 교육내용과 사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거나 네트워킹 역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기업가적 태도 분석

기업가적 태도 분석에서는 총 10개의 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112명이 응답하였다.

표 5. 기업가 태도
 Table 5. Entrepreneurial Attitude

문항	
Q1	나의 주변에는 창업준비 및 시작에 풍부한 기회가 있다.
Q2	나는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한다.
Q3	내가 새로운 사업을 망설이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Q4	나는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따른 위험을 감수한다.
Q5	나는 남들보다 새로운 기회를 먼저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Q6	나는 창업한 선배들을 존경하고 높게 평가한다.
Q7	나는 창업도 훌륭한 진로(혹은 경력)의 하나라고 본다.
Q8	나는 공공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스토리를 종종 접한다.

Q9	우리 사회는 창업 등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Q10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기업가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항별 신뢰도는 모든 문항이 .6 이상으로 신뢰의 요건을 갖추었다.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6. 기업가태도 기술통계량 분석
 Table 6. Analysis of Entrepreneurial Attitude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Q1	112	1	7	3.74	1.191
Q2	112	1	7	4.03	1.158
Q3	112	1	7	4.17	1.294
Q4	112	1	7	4.06	1.172
Q5	112	2	7	4.12	1.113
Q6	112	2	7	4.32	1.076
Q7	112	2	7	4.54	1.056
Q8	112	2	7	4.22	1.121
Q9	112	2	7	4.06	1.085
Q10	112	2	7	4.21	1.086
유효수 (목록별)	112				

각 문항의 응답 결과를 보면 보통에 해당하는 4점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 Q1(나의 주변에는 창업 준비 및 시작에 풍부한 기회가 있다.)는 3점대의 응답이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창업 기회를 발견할 계기를 찾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태도 분석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질문은 Q7(나는 창업도 훌륭한 진로의 하나라고 본다)이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에서 창업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육과정 혹은 창업 육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험 감수 등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 부분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3) 창업의도 분석

창업의도에서는 총5개의 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112명이 응답하였다.

표 7. 창업의도
 Table 7. Entrepreneurial Intention

문항	
Q1	나는 새로운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Q2	나의 직업적 목표는 성공한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Q3	나는 졸업 후 창업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Q4	나는 창업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Q5	나는 가까운 시일에 창업할 생각이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

문항별 신뢰도는 모든 문항이 .6 이상으로 신뢰의 요건을 갖추었다.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8. 창업의도 분석

Table 5. Analysi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N	기술통계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Q1	112	1	7	3.76	1.303
Q2	112	1	7	3.76	1.303
Q3	112	1	7	3.70	1.355
Q4	112	1	7	3.46	1.328
Q5	112	1	7	3.52	1.375
유효수 (목록별)	112				

창업의도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중간 4보다 낮은 응답 점수나 나타났다. 다만 장기적으로 창업을 할 의도나 창업가가 되고자 하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빠른 시일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업 지식을 습득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IV. 결론

창업진흥원에서 제시하는 모듈을 기준으로 평가한 전문대학의 창업 인프라는 1,000점 만점에 388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교육 측면에서는 높게 나타나지만 제도적, 물적 인프라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학생의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와 창업의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당면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역량과 태도는 7점 중 4점대를 나타내고 있어서 중간 정도의 역량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에 대한 의지는 7점 중 중간 이하인 3점대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에 대한 의지는 기업가정신과 인지적 능력 및 창업환경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종속적 의미를 감안하면, 우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업교과목 수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

로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에 맞는 물적 환경을 구축하고 창업교육은 이론식 강의 외 전공 및 실습형 교과목 개발과 더 나아가 창업동아리 및 창업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전문대학의 창업가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1] [http://www.newswire.co.kr/news_Read.php?no=833713&sourceType=rss\(2016.08.24\)](http://www.newswire.co.kr/news_Read.php?no=833713&sourceType=rss(2016.08.24))
- [2] Mok Young-du and Myeonggil Choi,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Development Model to Systemiz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dergraduate School,"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25, No. 2, pp. 833-857. 2012.
- [3] Kim Yong Tae,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Attitude on Undergradu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2, No. 2, pp. 13-20. 2017.
- [4] Diffley, Judy High. A study of women business owners and the importance of selected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related to educational programs. Diss. 1982.
- [5] Wu, Sizong, and Lingfei Wu. "The impact of higher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China."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 15 No.4, pp. 752-774, 2008.
- [6] Yang, Jun Hwan,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9, No. 6, pp. 65-77. 2014.
- [7] Wu, Sizong, and Lingfei Wu. "The impact of higher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China."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 15 No.4, pp. 752-774, 2008.

※ 본 연구는 2018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